중세 승원 회랑 조각에 나타난 동물 우화 마뉴스크립의 종교적 상징

이희숙 지음
Hee Sook Lee

이담 Books

들어가며

로마네스크 건축 조각 기둥머리는 성경 인물, 영웅, 동물, 꽃-식물로 계층을 만든다. 성경 인물이 처음이고, 식물 아칸투스로 장식한 코린트 기둥머리가 마지막이다. 이 책을 쓴 이유가 있다. 나는 "중세 승원 회랑의 초목과 꽃 조각 장식"(2018)에서 회랑에 나타난 꽃-식물을 연구한 후, 동물에 호기심이 생겼다. 한 계층 더 올라간 셈이다. 어쨌든, 동물 조각 연구는 그 자체로 중세기 상징 세계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물과 식물 조각 사이의 이해를 돕는다. 동물 조각이 나타나는 곳에는 인물이나 식물이 거의 항상 수반함이다. 또, 고대로부터 내려온 동물들의 기원과 성격을 마뉴스크립을 통해서 어떻게 중세 기독교 가르침에 사용되었는가를 배우게 된다. 긍정적 혹은 부정적 동물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안에 창조물이다.

승원 회랑의 건축 조각을 연구하려, 나는 12세기 프랑스와 스페인을 연결한 콤포스텔라 순례지의 여러 곳을 찾았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독자들과 나누고 싶다. 북스페인 부르고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실로스 마을이 있으며, 이곳의 산타 도밍고 데 실로스 승원 회랑은 널리 알려진 곳으로 많은 관광객이 지금도 방문한다. 낮에는 로마네스크 건축 연구 학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밤에는 이곳 승려들이 부르는 특별한 예배 합창을 들으려 세계의 음악 애호가들이 모인다. 나는 한 총으로 두 마리 새를 잡고 싶어 힘든 마을버스를 이용, 이틀 밤을 이곳에서 숙박했다. 첫날 밤, 합창 예배였다. 교회 연단에서 자리 잡은 이곳 승려들이 합창할 때마다, 나의 옆줄의 예배 인들이 이들과 행동을 같이하였다. 기도 자세로 무릎

을 굽히고, 절을 하고 손을 위로 올리는 등이다. 음악을 열심히 들으려, 불행히도 첫 좌석에 앉은 나는, 이상한? 예배 절차를 따르려 옆줄 예배 인들의 행동을 모방했다. 아뿔싸! 그들은 그날 승원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여한 다른 곳의 승려들이었음을 다음날 회랑에서 만난 한 예배자에게서 들었다. 움벨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the Name of the Rose)』을 기억하며, 나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나님은 성경의 숫자를 통해 그의 의도인 영원한 메시지를 전한다. 십(10)은 만족, 충만, 전체를 상징하여, 구약 성경에서는 십계명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이다. 신약에는 열 달란트 비유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십은 여행 완성을 의미하여 영웅 오디세우스는 9년 방랑 후 고향으로 돌아갔다. 10은 원주를 둘러싸는 9와 중심을 나타내는 1로 이룬 완전성의 숫자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발행한 나의 10번째 책이라, 더 의미 깊다.

또다시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도와주신 하나님.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나에게 10권의 책을 발간할 수 있게 같이 일한 한국학술정보에도 물론이다.
어디로 훨훨 날까? 중세기에 관한 나의 정열이 식지 않으면 이곳에서 11권의 책을 기대하며.

2019년 9월 핀란드 헬싱키
이희숙

목차

들어가며 4

Chapter
ONE

동물 우화집 9

Chapter
TWO

중세 동물 우화 마뉴스크립 33

Chapter
THREE

동물 속성과 상징 43

Chapter
FOUR

로마네스크 이코노그라피와
동물 우화 185

Chapter
FIVE

동물 기호학 191

Chapter
SIX

로마네스크 건축 조각의
사자와 새 205

Chapter
SEVEN

승원 회랑 기둥머리의 동물 247

용어해설 276
참고문헌 280